

# 朝鮮孝宗朝 羅禪征伐과 被我 鳥銃에 對한 小考

李 康 七\*

## 目 次

1. 머릿말
2. 邊岌將軍의 第一次 出征
3. 申瀏將軍의 第二次 出征
4. 鳥銃의 傳來와 그 發達
5. 燧石式 小銃의 傳來
6. 맺는말

## 1. 머릿말

朝鮮朝 第17代 孝宗大王때 當時 淸나라의 要請에 依해 黑龍一帶에 進出한 러시아軍을 討伐하기 爲해 우리나라 兵力을 出征시킨바 있다. 卽 이를 羅禪(러센 : Russian)征伐이라 하여 第一次때는 孝宗 5(1645)年 3월에 邊岌將軍以下 152名을 派遣하였고, 年 2 次때에는 同王 9(1658)年 4월에 申瀏將軍以下 265名을 出征시켜 當時에 우리軍事力을 遺憾없이 發揮한바 있다. 勿論 그 以前에도 兵力動員의 例는 있다<sup>1)</sup>하더라도 當時는 火藥兵器中 火繩式 鳥銃을 主武器로 하여 參戰하였고 또 그 鳥銃으로 一步前進한 燧石式小銃을 對抗 敵을 壞滅하고 凱旋하였으니 그 意義 자못 크다 할 것이다. 그래서 本稿는 當時에 使用된 鳥銃에 對한 그 來歷과 또한 當時 申瀏將軍이 鹵獲한 燧石式小銃에 對한 그 構造를 살펴 그 뜻을 살리려 한다.

\* 前軍事博物館長

1) 우리나라에서 火燭都監 卽 火藥兵器가 生産(1377)된 以後로부터 孝宗朝까지의 對外 出兵關係를 살펴 보면

첫째 : 禡王 14(1388)年 5月 王命으로 遼東征伐을 꾀하였으나 威花島에서 回軍하였고,

둘째 : 恭양왕 1(1389)年 2月 慶尙道都巡問使 朴 歲는 戰艦一百餘隻으로 對馬島를 征伐하였으며,

셋째 : 太祖 5(1396)年 12月 金士衡(1333~1407)으로 하여금 壹岐, 對馬島를 攻擊케 하였고,

네째 : 世宗 1(1419)年 6月 李從茂(1360~1425)는 戰船 227隻에 兵力 17,285名을 이끌고 對馬島를 征伐했고,

다섯째 : 世祖 6(1460)年 8月 江原咸吉道 都體察使 申叔舟(1417~1475)는 豆滿江外 毛憐衛의 野人을 征討했고,

여섯째 : 世祖 13(1467)年 9月 康 純(1390~1468) 南怡(1441~1468)는 西北邊의 建州衛를 征伐했고,

일곱째 : 宣祖 21(1588)年 正月 李 鎰(1538~1601)은 女眞의 時錢部落을 征討하였으며, 그 以前에 火藥兵器를 使用한 痕跡으로는 忠烈王即位年(1274) 10월에 麗蒙聯合軍이 日本 博多征伐時에 震天雷를 使用한바 있음.

## 2. 邊 岌將軍의 第一次 出征

러시아인으로서 最初로 東進을 始作한 것은 1581년이지만 黑龍江地域으로 進出한 것은 그로부터 約 60餘年이 지난 1644年 봄이었는데, 따라서 그들은 그곳 原住民들로부터 毛皮稅와 銀, 銅, 鉛等의 鑛石과 穀物을 調達하기 爲한 目的에서였다.<sup>2)</sup> 그러나 淸나라에서는 原住民들의 要請도 있었으려니와 그의 保護는 勿論 따라서 그들의 侵略의 行爲를 그대로 默過할리 없어 1652年 4月初 3日 새벽을 期해 寧古塔章京의 海塞指揮下에 滿洲八旗兵(正規軍)으로 하여금 當時 黑龍江下流沿岸 烏禮拉에 있는 러시아軍營을 急襲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火力의 劣勢로 말미암아 그 作戰은 慘敗하고 말았다.<sup>3)</sup> 그리하여 淸나라에서는 새로운 作戰計劃을 樹立하였으니 거기에는 火砲術이 뛰어난 朝鮮軍의 支援을 要請키로 하고 淸使 韓巨源을 派遣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淸使 韓巨源이 朝鮮에 到着하기는 孝宗 5(1654)年 2月初 2日이었는데 때에 援兵要請을 받은 孝宗은 領議政 鄭太和(1602~1673)의 建議<sup>4)</sup>에 따라 當時 威鏡道兵馬虞侯인 邊 岌將軍<sup>5)</sup>이 推薦選拔되었다. 出動命令을 받은 邊將軍은 總兵力 152名(烏銃手 100名包含)으로 編成하고 補給品은 主副食 10日分 卽 集結地인 寧古塔(吉林省)까지의 食糧만을 携帶하여 出動하기에 이르렀던바 그의 參戰 經緯에 對해 그가 孝宗에게 報告한 內容을 간추려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sup>6)</sup>

寧古塔(吉林省)은 會寧에서 北쪽으로 8日을 가서 이르렀고,<sup>7)</sup> 이어 100里를 가 忽可江에 到着하였는데 거기서는 者皮船을 타고 또 100里를 가니 忽可江과 寧古江이 合流되었다. 여기서부터는 東北을 船便으로 100里를 가니 地勢가 점점 낮아져서 5日만에 會通江에 到着하였는데 江물이 甚히 빨리 6日만에 哈境에 이르렀다.

한 江이 西쪽에서부터 흘러오는데 그 넓이가 臨津江보다 넓었으며 그 이름이 雲羅江이라고 한다. 또 會通江과 合流하여 그 이름을 後通江이라 하는데 寧古塔에서 14日을 가서야 비로서 哈부이란 곳에 이르렀는데 距里는 2,400餘里나 되었다.

寧古塔에는 木城이 자못 적으나 城內에는 겨우 300家이고 그 將帥의 이름은 尼哈里라고 하는 者가 事理를 알고 또 이름이 煞古大라는 者가 있었다.

者皮艇이 적은 것은 겨우 4,5人을 태울만한 것이 140隻이고, 큰것은 17人을 태울만한 것이 20隻

2) 朴泰根譯註 國譯北征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刊 (1980. 12. 30)

本書는 譯者 朴泰根博士가 多年間 研究끝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後援으로 刊行되었다. 이는 그의 꾸준한 精誠으로 말미암아 李仁哉所藏의 北征錄을 그리고 러시아側資料까지 發掘하게 하였음은 매우 뜻 깊은 盛事라 하겠으며, 따라서 本稿도 本譯書가 基本이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3) 前掲 1) 러시아의 東進條

4) 孝宗實錄卷 12 全王 5年 2月 癸亥條

5) 邊 岌將軍은 麗末名將 邊安烈(1334~?)의 後孫이다. 그는 孝宗 5(1654)年 威鏡道兵馬虞侯로 羅禪征伐에 參戰後 凱旋하고 1656年 9月에는 全羅水使로 昇任하였으려, 顯宗元年(1660)에는 忠洪水使로 轉任되었다. 특히 筆者는 邊將軍의 行狀을 究明하기 爲해 宗中會長 邊鎬爽先生께 家譜에 入錄 與否를 確認한 結果 登載된바 없어 詳述하지 못함을 자못 아쉽게 여기는 터이다.

6) 孝宗實錄卷 14 全王 6年 己未 4月 丁丑條.

7) 寧古塔摠覽圖에 따르면 會寧에서 寧古塔까지의 距離는 7,8日程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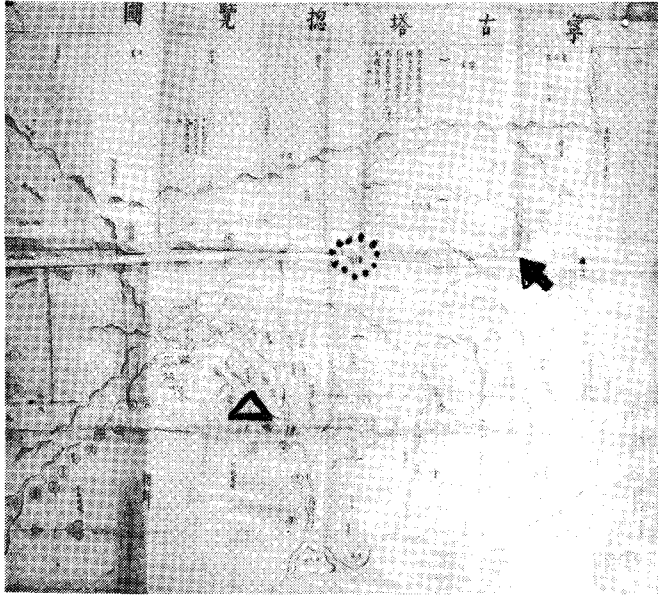


그림 1 寧古塔總覽圖

보기 { △...會寧  
○...寧古塔  
←...黑龍江入口

江과 後通江이 合流하는 곳에 이르렀다. 賊이 처음에는 싸우려 하더니 東風이 일자 돛을 날리면서 가버렸다. 賊艇의 男女는 400名(실지는 370名)이 안되고 가진바는 오직 火器뿐이었다.

그들의 容貌은 모두 南蠻賊에 類似하고 賊의 옷은 모두 누른 비단 이었다. 黑龍江下流에 또 魚皮獺子가 있었는데 北京으로 歸順했다. 스스로 말하기를 哈地와의 相距가 15日程이라 하니 그 사이가 아주 멀어서 아무도 본사람이 없었다. 黑龍江上流에 또 復哈部族이 있는데 이번에 싸운 도적은 陸地로 와서 復哈를 노략질 했다. 復哈이 降服하여 中國에 붙은 뒤로는 비로소 배를 만들어 왔는데 鐵釘을 쓰지 않고 다만 나무끈으로 엮었으니 결코 海艇에 比할바가 아니었다.

邊將軍은, 이 도적은 반드시 西洋國을 쫓아서 왔을 것이라 하였고, 또 哈는 黑龍과 雲羅 사이가 곧 蒙古 땅인데 黑龍江이 甚히 넓고 江下에도 列鎭의 遺址가 있으며 如海地方은 寧古의 西南地方에 있는데 우리나라와 距離가 멀지않다. 哈는 머리를 깎고 이마를 덮고 또 巾으로서 썼으며, 옷은 單紐이다. 砲聲을 들으면 男子는 귀를 막고 누우며 女子는 놀라 자빠졌다 한다.

以上 報告內容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行軍旅程은 陸水路를 通해 2,400餘里에 達한다. 또한 러시아 軍과의 交戰은 4月 28日이었는데 그들은 大船(300石積載量) 13隻에 小船26隻으로 武裝하였으며 我軍은 160隻이라는 越等한 數字이긴하나 러시아軍 艇船에 比한다면 17人乘이나 4,5人乘에 不過한 보잘 것 없는 船舶이었다. 그래서 邊將軍의 作戰計劃에 따라 戰鬪때는 陸地에 上陸하여 岸上에 結陣 敵을 誘導, 柳棚을 利用遮蔽한 後 鳥銃을 放砲하므로써 러시아軍에게 많은 負傷者를 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5月 2日 러시아軍은 後退하고 따라서 朝鮮軍과 淸軍은 追擊하여 好通에서 크게 交戰하고 다음날 다

이었다. 哈에 이르러 비로소 賊艇을 만났는데 大艇은 13隻으로 300石을 실을만 하고 小艇은 26隻으로 倭艇과 相似했다.

때에 淸將이 邊將軍을 先鋒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邊將軍이 말하기를 「어찌 者皮艇을 타고도 저들의 巨艦을 防禦하겠는가」 하였더니 淸將이 그렇게 여겨 드디어 命令을 내려 가로되 哈300과 淸兵으로 江邊地勢가 가장 높은 곳을 擇點해서 結陣하는 한편, 따라서 柳棚을 岸上에 列置하고 我軍으로 하여금 遮蔽하여 放砲하니 賊艇이 漸敗하였는데 그 배가 體形이 크나 櫓가 없는고로 나아 가서 능히 싸우지 못하고 물결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黑龍

시 90里를 더 追擊하여 骨地에서 물리쳤으며, 이어 5月 4,5日 또 追擊하였으나 敵은 黑龍江을 거슬러 逃亡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5月 6日 本陣으로 돌아와 土城을 쌓고 5月 16日 黑龍江을 出發 6月 13日 寧古塔에 到着하고, 出征한지 84日만인 6月 21日 全員 無事히 歸國凱旋하였던 것이다.

### 3. 申 瀏將軍의 第二次出征

邊 岌將軍의 第一次 出征이 있은후 淸나라에서는 다시금 그다음해 黑龍江 上流에서 明安達禮로 하여금 러시아軍을 討伐케 하였으나 失敗하고 말았다. 오히려 黑龍江 流域에서 러시아軍은 從前과 다름없이 毛皮稅를 비롯한 食糧調達は 勿論 1657년부터는 松花江 內陸에까지 侵透하여 淸軍과 接戰하는 事態에까지 發展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淸나라에서는 1654年の 作戰失敗의 原因을 分析하고 그 對應策을 講究하였으니 첫째로는 러시아軍은 黑龍江流域을 據點으로 하는 까닭에 水上戰에 對備하여야 하였고, 둘째는 增強된 火力과 兵力의 確保等を 着眼하여 己자의 船舶 建造를 爲해 600餘名을 動員 上船 4隻과 中船36隻 그리고 小船12隻을 確保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火力과 兵力 動員問題에 있어 第一次 戰鬥經驗을 參酌 朝鮮軍에서 火力을 倍로 增加시켜 200名으로 要請하였다(여기에는 領兵將을 비롯한 哨官 2名, 軍官 2名, 通事 2名, 火兵 20名, 砲手 200名, 隨率 38名 計 265名)

한편 淸나라 측에서도 北京砲手 100名을 비롯하여 寧古塔 銃手 100名, 甲兵 1,000名, 水兵 600名(船舶建造員을 登用) 其他 390餘名이 動員되었는바 이는 모두 朝鮮軍과 合하여 2,455名에 達하였다.

以上은 第一次 發兵으로부터 第二次 征伐을 爲한 計劃段階이고 其以後 狀況에 對해서는 申 瀏將軍이 直接執筆한 北征錄<sup>8)</sup>을 根據로 하여 當時의 部隊狀況을 다음에 알아 보기로 한다.

그의 日記에 따르면 孝宗 9(1658)年 4月初 6일부터 始作되며 그는 日常生活을 軍指揮官답게 昭詳히 記錄하고 있다. 즉 部隊 統率에 必要하였던 教育事項을 爲始하여 部隊의 行軍·野營·戰鬥狀況 部下의 보살핌 특히 論功賞勳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처럼 細心하게 어루만짐이 나타나고 있다.

于先 部隊가 出動하면 가장 神經이 쓰이는 것이 日氣였으리라 짐작된다. 그 理由의 하나가 當時의 主武器인 鳥銃은 有筒에 火繩式이기 때문에 비, 바람에는 弱할뿐 아니라 甚하면 使用不能하기가 답이며 또한 行軍이나 野營때는 行動에 不便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4月初 6일부터 始作하여 出征任務가 完了되어 原隊(會寧)復歸한 8月 27일까지 總 142日間の 날씨를 알아 보았다. 더우기 이 季節은 늦은 봄에서 초가을에 접어드는 바람과 비가 다른 季節에 比해 많을것으로 여겨지나 統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맑은 날씨는 全體日數의 77%를 점하고 날씨가 좋지 않은 것은 23%에 이른다. 결코 적은 日數라고는 볼 수 없으나 多幸하게도 戰鬥日인 6月 10日是 저녁에 가랑비가 왔다고는 하나 낮에는 비교적 좋은 날씨였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我軍은 모두 鳥銃을 使用하여 燧石式小銃을 使用한 러시아軍을 制壓하였던 것이다.

또한 申將軍은 軍指揮官으로 매우 明哲한 指揮官으로 여겨진다. 그는 部隊가 編成되자마자 當時의 主武器였던 鳥銃의 射擊訓練을 實施하여 有事時에 對備하였다. 즉 會寧集結地에서 2回 그리고

8) 前揭註 2 北征日記 參照

出征間日氣一覽表

區 分	합 음	맑은후 바람비	바 람	구 름	비	비후맑음	바람후비	바람전 눈개비	미기입	계
日 數	110	8	4	6	14	1	3	1	5	142
%	77	5	3	4	10	0.7	2	0.7	4	

宋加羅江(松花江) 陣地에서 3回等 모두 5회에 亘한 射擊訓練을 實施하였다. 元來가 우리나라의 威鏡道砲手が 善放한다는 傳說이 있다. 이는 世宗때 六鎭을 開拓하고<sup>9)</sup> 頻繁히 出沒하는 女眞族을 섬멸한 것을 비롯 오랑캐의 征討에 앞장선 地域的 特殊性이 있기 까닭으로 여겨지며 그래서 一·二次 때 選拔된 砲手도 모두 그곳 各鎭에서 善放砲手를 選拔差出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淸나라의 砲手들의 形便은 그렇지 못하였다 한다. 즉 寧古塔砲手 100名은 그 切半이 砲術에 生疎하였다 하며 北京에서 差出된 砲兵은 鳥銃手が 아닌 砲兵이었던 것이다.

鳥銃試放一覽表

日 程	4/6	4/21	5/17	5/18	5/21
場 所	會 寧	會 寧	宋加羅江	宋加羅江	宋加羅江
結 射擊人員	200	200	200	200	
果 摘 中 率	51	記錄없음	40	50	左哨67名中 3中3, 2中8, 1中56 右哨56名中 3中 2, 2 中3, 1中41

한편 6月 10日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저녁에는 가랑비가 오기는 하였으나 낮에는 比較的 바람이 없는 좋은 날씨였다. 이날 아침 我軍은 列伐마을을 떠나 黑龍江口를 지나 20餘里를 내려갔을때 러시아 軍艦 11隻이 江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래서 我軍이 러시아軍艦을 尙해 接近하니 러시아軍艦은 곧 10餘里를 後退하여 江가에 배를 묶아 布陣을 하는 것이었으니 卽水陸兩用作戰에 突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我軍도 번갈아 한마장쯤 接近한뒤 一齊히 大砲로 攻擊을 開始하였던바 러시아軍艦에서도 이에 應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때에 前衛, 中軍, 後營의 모든 戰船이 一時에 쳐들어가 銃과 활을 무수히 쏘았다. 이어 完全 包圍한後 敵船에 불을 질러 태우려할

被我戰鬪損失比較表

區 分	總 兵 力	戰 死	負 傷	鹵 獲 裝 備	船 舶	
聯 合 軍	朝 鮮	265	8 (3%)	25 (9%)	1. 러시아鐵銅大砲 4門 2. 中國鐵製大砲 2門 3. 燧石式小銃 4. 火藥 5. 軍旗 6. 彈丸	
	淸 國	2190	110 (5%)	200 (9%)		
러 시 아	498	271 (54%)			11隻中 10隻	

9) 金宗瑞(1390~1453)로 하여금 世宗 16(1434)年以來 10餘年間に 걸친 豆滿江下流南岸에 設置한 六鎭이다 卽 鍾城, 穩城, 會寧, 慶源, 慶興, 富寧等을 말한다.

때 淸軍指揮官이 불태우지 말라는 緊急命令을 내렸다. 이로 因해 完全殲滅하려던 것도 水泡로 돌아가고 오히려 敗殘兵들의 射擊을 받아 被害만 더해갔다. 이 戰鬪에서 發生한 被我的 損失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戰鬪의 概念은 先捕捉 敵을 完全殲滅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 戰鬪에서는 完全包圍殲滅直前に 指揮官의 結心變動으로 많은 差跌을 가져왔다. 勿論 敵이 입은 54%의 損失에 比한다면 我軍의 被害는 보잘것 없는 적은 數字라 하지만 指揮官의 結心變動이 없었던들 그 被害는 더 줄일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出征에서 敎訓을 던져주는 것은 非戰鬪間의 損失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卽 會寧砲手 姜應方은 最初 選拔當初부터 瘡疾患者였다. 出動期間中 매우 苦生을 하였음은 勿論 戰鬪에도 參加치 못하였다. 또한 富寧砲手 金友一은 火藥을 말리다 폭발하여 한쪽 다리를 傷해 매우 苦生을 하였고, 또한 鏡源砲手 朴士吉은 鳥銃試放때 鳥銃銃列破列로 말미암아 왼팔에 重傷을 입었다. 勿論 이는 姜應方을 除外하고는 總員에 比해 極少數이기는 하나 亦是 非戰鬪의 損失로 注意를 要한 安全事故였다.

#### 4. 鳥銃의 傳來와 그 發達

黑龍江에 遠征하여 러시아軍을 制壓殲滅한 것은 亦是 鳥銃의 威力이라 評價할 수 있다. 러시아軍이 燧石式 小銃을 使用하였다고는 하나 그무엇의 差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더욱 우리나라 鳥銃手들의 射擊術이 뛰어났다고는 하나 基準未達의 射擊솜씨였다.<sup>10)</sup> 한편 同日記 5月 20日條에 따르면 淸軍의 銃砲는 우리나라 鳥銃과도 다를뿐 아니라 日本式도 아니라 하였다. 따라서 이를 淸代槍砲를 詳考하건대 寫眞인 關係로 그說明이 正確치는 못하나 그 製法은 우리나라 鳥銃製法과 恰似한 바 특히 그 銃身이 길고 따라서 개머리판 길이가 짧은 狀態로 보인다.<sup>11)</sup>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377年 10월에 火桶都監이 設置되고<sup>12)</sup> 따라서 各種火器가 創製 各戰線에서 倭寇擊退 乃至는 오랑캐征伐에<sup>13)</sup> 많은 有功이 있었지만 鳥銃이 傳來되기는 宣祖 23(1590)年 3月 日本에서 使臣 要請으로 왔던 平義智가 鳥銃과 孔雀을 가져다 바친바 있다. 하지만 鳥銃은 軍器寺에 내려주고 孔雀은 南陽바다에 놓아 주었다.<sup>14)</sup> 그後 壬亂다음해인 癸巳(1593)年 9月 13日에 忠武公李

10) 國譯大典會通(韓國古典國譯委員會 4293, 4, 5刊) 卷之四 兵典試取 鳥銃條에 따르면 距離 100步(標的 長 7尺, 廣 2尺) 3發을 發射하는데 한번 맞힐때마다 7點半을 주되 貫에 맞으면 2倍點을 주게 되었다.

11) 周 緯著 中國兵器史稿 第三章 鐵兵寅淸代槍砲條參照

12) 太祖實錄卷 7 肅王 4年 4月 19日條

13) 宣祖實錄卷 21 肅王 20年 丁亥 10月 甲寅條

鳥銃의 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勝字銃筒을 오랑캐 殲滅作戰에 使用한 바 있다. 이 勝字銃筒은 全羅左水使와 慶尙兵使를 歷任한바 있는 金 壻將軍이 創製한 것으로서 宣祖 16(1583)年正. 5月 尼湯介亂時에 穩城府使 申 砮(1546~1592)將軍이 胡賊擊退時 使用하여 有功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宣祖 16年 6月 宣祖는 故兵使 金 壻에게 벼슬을 贈職하고 그의 子孫에게까지도 官職을 주었던 것이다.

14) 憲慈錄卷之一 그原文을 다음에 抄錄하면 「庚寅三月 遂與義智等同發 時義智獻二孔雀及鳥銃槍刀等物 命放孔雀於南陽海島 下鳥銃於軍器寺 我國之有鳥銃始此」라 하였듯이 이때가 우리나라로서는 鳥銃을 가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舜臣(1545~1598)將軍이 鳥銃을 만들어 陣中에서 試放한 後 그妙法에 依하여 많이 만들게 하였다.<sup>15)</sup> 이를 契機로 우리나라에서도 鳥銃이 널리 普及되었으니 곧 軍裝備化되었는바 이에 對해 純祖朝때 刊行된 戎垣必備 鳥銃條의 內容을 알아보기로 한다.<sup>16)</sup>

「火器가 모르는 사이에 殺伐하고 뜻밖에 酷毒함이 鳥銃같은 것이 없다. 鳥銃의 힘은 能히 갑옷을 뚫고, 쏘며는 그 命中함이 다만 활이 버드나무를 뚫는 것만이 아니다. 대저 二重 갑옷을 뚫는 날카로움이 銃 銃身이 길데 있다. 銃身이 길며는 火氣가 새지 않아서 총알(彈丸)이 멀리 나가고 힘이 있다. 쏘며는 能히 命中함은 나가는 銃口가 곧(直)은데 있다. 銃口가 곧으며는 裝藥(裝填)하는데 適宜하고, 點火해도 動搖하지 않는고로 能히 열발(十發)을 쏘며는 반드시 8,9가 命中한다. 卽 나는데 숲에 있어도 모두 가히 쏘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로 因해서 得名했다. 이때문에 鳥銃이 利器인 것이다. 그 힘이 猛烈하고 그 威勢가 빨라서 비록 강한 활이나 毒한 화살이라 할지라도 鳥銃만 같지 못하다. 이는 騎兵이나 步兵이라도 모두 쓸 수 있다. 귀(貴)한바는 만들때 鍊鐵을 熟精시키고 銃列 뚫음을 곧게 뚫어서 막힘이 없게 한 다음에라야 바야흐로 좋은 것이라 한다」라 하였다. 卽 이 鳥銃은 이제까지의 携帶用 火器에 비해 그 銃身이 길어 멀리 나갈수 있고 命中率이 높았으며 또한 發射시키는 過程에서 이제까지는 손으로 불씨를 點火시킨 까닭으로 動搖하여 그 命中率이 좋지 않았으나 이는 火皿과 鷄頭裝置를 開發하고 그 鷄頭に 火繩을 붙여 點火케 함으로써 動搖치않는 關係로 그 命中率이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鳥銃과 거기에 所用되는 備品 卽 火藥筒 그리고 彈袋에 對하여 現存하는 遺物을 통해 그 形態와 曼드리를 다음에 알아보기로 한다.

## 가. 鳥 銃

鳥銃의 構造는 前記 戎垣必備解說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鍊鐵로 熟精된 銃列에는 불씨를 받아 發火시키는 火皿을 비롯하여 目標物에 對하여 正照準을 하기 爲한 가늌자와 가늌쇠가 同時에 鑄造되었다. 또한 이 銃列을 밀으로 감싸는 木質板部가 連結되는데 이 板部右則에는 卽銃列藥臺끝을 起點으로 火繩에 불씨를 火皿에 點火시키는 機關部가 貼付設置되었다. 이는 방아쇠로 作動되는 火繩을 물리는 鷄頭와 또 이 鷄頭를 火皿에 點火시킬 수 있는 動作에 도움을 주는 용수철이 貼付되었다. 따라서 방아쇠에 連結된 鷄頭뎡치쇠는 板部內部에 設置하고, 방아쇠 만든 반월형 모양의 방아쇠울 안에 設置하였으나 방아쇠울은 방아쇠와 같이 宷쇠로 上下를 固定하였다.

또한 이 機關部의 資料는 間或 水鐵製도 있으려니와 大部分이 鑄製이며 火皿에는 밀어 달고 여는 덮개를 하여 安全裝置로 活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방아쇠를 連한 上部에는 구멍을 비스듬히 뚫어 火繩을 그 구멍에 通過시켜 鷄頭に 連結시키므로 作動時 火繩保持에 支障없게 하였다. 또한 銃口쪽

15) 亂中日記(玄岩社刊) 癸巳年 4月乙丑條參照

16) 戎垣必備 鳥銃條를 參考로 다음에 抄錄한다.

「火器之暗中殺伐意外酷毒莫若鳥銃鳥銃力能洞甲射能命中不獨弓之穿楊而已夫透重鎧之利在於腹長則火氣不泄而發丸遠有力射能命中在於出口直出口直則托藥得宜而點火不搖動故能十發必八九中卽飛鳥之在林皆可射落因是得名此鳥銃之所以爲利器也其力猛其勢迅雖強弓毒矢弗如也馬上步下皆可用所貴在於造時鍊鐵熟精鑽穴洞直必使鉛丸宛轉無礙然後方可謂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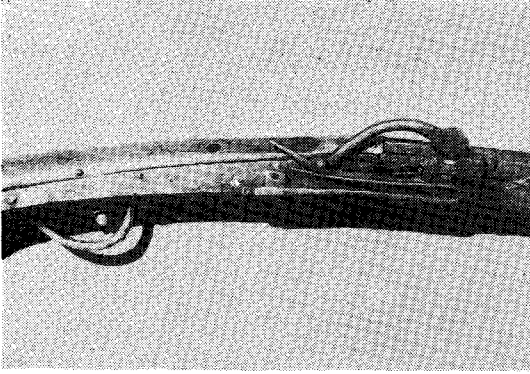


그림 2 鷄頭가 火皿에 떨어진 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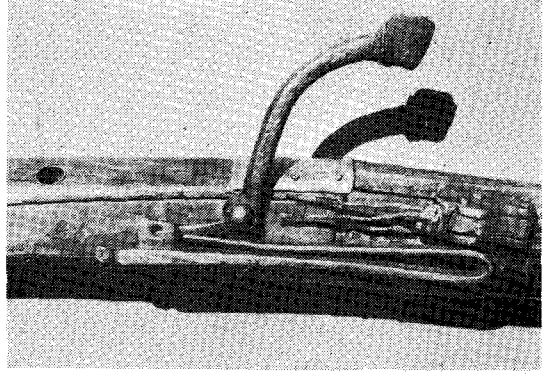


그림 3 鷄頭가 세워진 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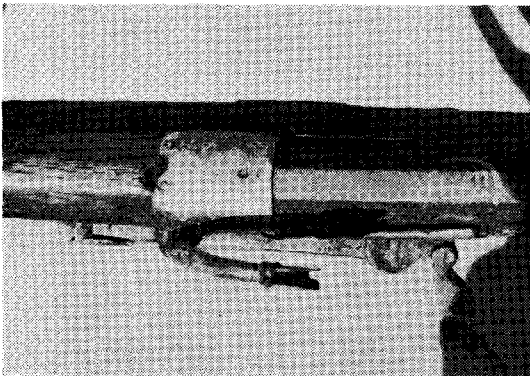


그림 4 火皿덮개가 열린 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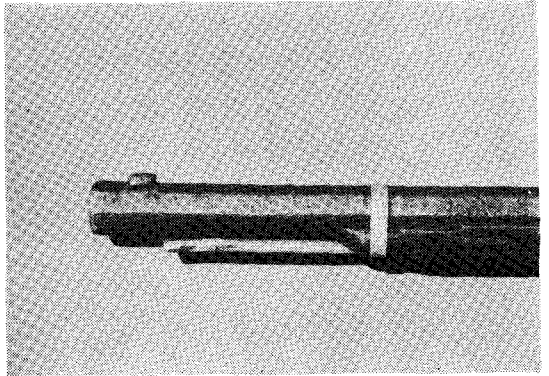


그림 5 銃口와 柳杖插入狀態

밑으로는 柳杖을 插入하게 되었는데 이는 火藥이나 激紙 그리고 彈丸을 裝填한 後에 柳杖으로 이를 다지게 된 까닭이다.

#### 나. 火藥筒

火藥筒은 鳥銃을 放射할때 所用되는 火藥을 携帶하는 木製筒을 말한다. 火藥은 油紙에 싸서 携帶하기도 하려니와 木製筒이 大部分이다.

그 製法을 살펴보면 形態는 大概가 龜形으로 머리나 등(背) 그리고 옆에는 精巧한 솜씨로 長生紋을 비롯한 여러 모양의 무늬를 彫刻하기도 하고 或은 素朴하게 彫刻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黑漆을 하여 한층 더 두드러진 模樣을 낸것도 있으나 오히려 漆을 하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이는 몸통과 머리로 區分되는데 몸통은 大概 등(背)을 立體的으로 表現하고 따라서 목부분을 露出토록 하며 腹部를 곱게 파내 火藥이 貯藏토록 하는 한편 腹部에는 다시 뚜껑을 原型대로 組立固定한다. 한편 머리는 比較的 精巧한 편인데 外貌는 原型대로 彫刻하고 따라서 속 卽 목부분은 둥글려 파내 몸통속으로 들어가는 쪽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머리와 몸의 그 굵기의 差를 두고 끝부분은 斜線꼴로 깎아 마무리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이 머리에 담기는 火藥用량이 鳥銃







그림 7 木製火藥筒

다. 彈 袋

鳥銃의 彈丸은 散彈이기 때문에 그 命中率 또한 높다. 우리나라 鳥銃의 標的基準은 그 길이(長)7尺이고, 너비(廣)2尺이며 또한 그의 配點은 한번 맞출 때마다 7點半을 주되 貫에 맞추면 倍點을 주게 되었다.<sup>17)</sup>

一名 탄알재기 또는 鳥口라고도 하는 이 彈袋는 比較的 小形의 빨로 곱게 다듬어 새의 부리 모양으로 만들어 그 머리部分에는 부드러운 鹿皮로 주머니를 만들어 씌운다. 이 彈袋 亦是 火藥筒의 머리에서 一發用量 단이 담기듯이 一發發射量의 彈丸만이 들어가게 된 주머니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彈

17) 前掲註 10參照

一發發射하는 量으로 調整되기 까닭이며 그래서 이 火藥筒의 製造過程에서 이 목部分 製法이 가장 까다롭다는 것이다. 또한 등(背) 正中과 이를 連한 左右 肩部쪽에는 둥근 고리쇠가 各各 한개씩 附着되었는바 이는 어깨걸이 끈을 연결하기 위해서이다.

本稿에 紹介되는 火藥筒은 現在 軍事博物館에 所藏된 것으로써 이는 6.25當時 우리나라에 參戰한 美步兵第2師團 第15野戰砲兵大隊長 LTC (Ret) KLEMENS NELSON 이 平壤博物館에서 鹵獲하여 本國으로 가져갔으나 1970年 7月 16日 當時 美國에 留學中이던 李基百中領의 周旋으로 軍事博物館에 寄贈한 것으로서 그 諸元은 다음과 같다.

火藥筒諸元

총길이	22.5cm	높이	6.8cm
복부가로	12.5cm	세로	15.4cm
두부총길이	7cm	두상길이	5cm
경부길이	4.5cm	너비	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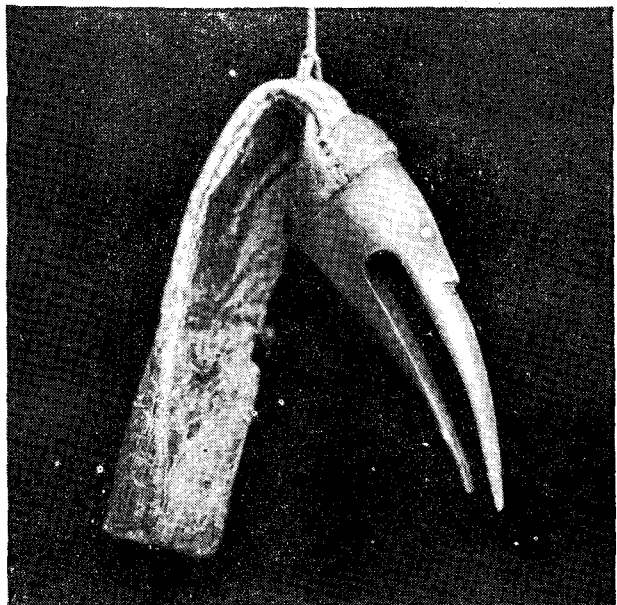


그림 8 彈 袋

丸이 가득 채워진 주머니의 烏口를 銃口에 插入하고 彈丸을 털어 넣으면 一發發射量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彈袋는 每砲手마다 여러개가 所用되는 것이며 準備가 要求되는 것이다.

## 5. 燧石式 小銃의 傳來

北征錄中 7月 初8日字에 依하면 鏡源砲手 한사람이 먼저번 戰鬥때 敵缸中에서 火鐵(부시) 하나를 鹵獲했으나 淸나라 指揮官이 이것을 알고 沒收하였다 하였고,<sup>18)</sup> 또한 同月 24日은 大通官 李夢善을 찾아 이번 戰鬥에서 鹵獲된 鳥銃은 그 構造가 달라 매우 神奇하니 몇자루 入手해서 國家에 바치고자 한다고 대장에게 要請해 달라고 要求한적이 있으며, 그후 同月 26日에는 대장이 申將軍을 부를 機會가 있어 直接 建議한바 있다. 卽「軍士를 指揮하여 먼곳에까지와 큰 勝利를 하고 凱旋하니 우리나라에도 큰 榮光이다. 그런데 敵의 銃砲가 매우 特殊하니 萬若 이를 몇자루 入手하여 國家에 바칠 수 있다면 凱旋의 榮光은 더한층 빛날 것이다」라고 要請하였으나 淸나라 指揮官은 屢번히 申將軍의 精誠어린 要求를 拒絕하였었다. 그러나 드디어 同月 28日 那 많은 鹵獲된 鳥銃가운데 단 한자루를 보내오음으로서 비로소 燧石式 小銃을 한자루 確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仁祖 9(1631)年 7月 陳奏使 鄭斗源(1581~?)이 明나라에서 紅夷砲題本과 鳥銃을 가져 온것이 燧石式 小銃이었다. 이 鳥銃에 對해 尙玄 李能和(1868~1945)는 國朝寶鑑과 星湖塞說을 引用하여 다음과 같이 解說하고 있다. 卽「鳥銃은 不用火繩하고 而石火自發하여 其放丸이 比我國二放之間에 可放四五丸하고」라 明示하고 있다.<sup>19)</sup> 卽 이 鳥銃은 火繩을 使用치 아니하고, 부시와 부시돌로써 불이 일어 그 發射하는 速度는 再來의 우리나라 鳥銃2發을 發射할 동안 能히 4,5發을 發射할 수 있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이 燧石式 小銃은 仁祖朝나 孝宗朝를 通해 開發한 痕跡을 찾을 길이없고 다만 高宗初에 後裝式 小銃이 渡入될때까지<sup>20)</sup> 火繩式 鳥銃이 繼續 主流를 이루었음이 文獻이나 遺物을 通해 知悉하는 바이다. 그러면 當時에 鹵獲된 燧石式 小銃이란 어떻게 構成되었는지 이를 文獻을 통해 다음에 알아 보기로 한다.

最初로 出現한 모든 火砲는 모두 손으로 불씨(火種)를 가지고 火門(藥線穴)에 대어(壓着) 點火시키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이렇게 單純한 點火法을 指火法이라 稱하는바 우리나라에서도 最初 創製하였던 各種火器中 有筒式 卽 砲(銃)口에서 火藥과 彈類를 裝填하는 火器는 모두 이 方法을 使用하였던 것이다.<sup>21)</sup>

이어 불씨를 손으로 點火하던 指火式時代로부터 얼마지나면 발침목을 대고 손대신에 S形으로 구부러진 金屬製의 火繩保持具가 創案되었다. 이것을 中央에 定鐵을 박고 上端에는 火繩을 끼운 것으로서 下端은 방아쇠 役割을 하게 되어 있다. 그後 15世紀末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새로운 火繩點火法이 創案되었는데 이는 火挾의 鷄頭가 發條에 依해 常時 올라간 形態이고 이는 방아쇠를 당김과 아

18) 前掲註 2 北征日記中 7月初 8日條

19) 李能和著 朝鮮基督教及外交史上編 第二章 最初輸入之西洋圖書, 武器, 物品曆法 二 鄭斗源의 歸獻西洋圖書武器等物參照

20) 韓國史(最近世編) 震檀學會 4294. 6. 20刊 第2章 大院君世道와 內外政治條參照

올려 鷄頭가 火皿에 接觸하게 되어 있다. 그런 關係로 急速한 點火를 바랄 수는 없으나 爆發의 危險이 없는 利點이 있는 것이다. 이 點火法은 銃은 두가지 形式으로 되었는데 유럽의 一般的 火繩銃으로는 火挾의 位置는 개머리판 쪽을 向하여 通常 右便側板에 붙어있고, 또 一種은 火挾이 和(日製) 銃과 같이 銃口便으로 向하여 있는데 그 位置는 유럽式이 先行하는 形式으로 이 火繩銃은 이란, 印度中國과 亞細亞大陸으로 移轉되어 普及되었다.

16世紀에 들어서면 유럽의 南部에서 強力한 板스프링을 使用하여 火挾을 急速히 火皿에 붙이게 하는 瞬發式 點火法이 考案되어 一段進歩되었는바 그 擊發裝置는 燧石式에 應用되기 가답에 그 壽命은 極히 짧았다. 이 式은 1500年代에 아시아에 進出한 폴루칼인에 依해 傳해졌는데 모로코를 經由하여 日本의 種子島에 傳來(1543)된 火繩銃은 바로 이式이었던 것이다.

火繩을 使用하면 點火는 確實하나 恒常 불씨를 携帶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바람과 비(雨)에 弱하다는 큰 缺點이 있었다. 그래서 옛부터 發火源으로 쓰던 燧石(부싷돌)과 鋼鐵(부시)에서 나온 불꽃을 利用하는 案이 着想되었는데 이는 16世紀에 들어와서 火繩銃이 發明되고 그後 얼마 아니가서 獨逸의 「뉴른베루구」의 銃工들이 當時發明한 回轉式 「라이터」의 機構를 點火機에 應用하는데 成功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鐵鋼製의 톱니바퀴(齒車)를 彈機로 回轉시켜 鷄頭に 붙린 黃鐵鑛(priety)를 齒輪面에 대고 摩察하여 發生하는 불꽃을 火皿에 받아 火藥에 點火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담배를 피울때 쓰는 「라이터」의 原理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劃期的인 發明도 機構가 複雜하고 高價인 關係로 軍용으로 採用되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고 簡單하고 命中率이 좋은 火繩銃을 驅逐하지 못하였다.

한편 1560年頃 火打石을 鋼鐵面에 때려 發火하는 燧石發火機가 「홀란드」에서 發明되었다(그림 9 참조). 이것은 火蓋와 當금이 따로 되어 있고 鷄頭に 물리는 燧石이 彈機에 依하여 當金에 부딪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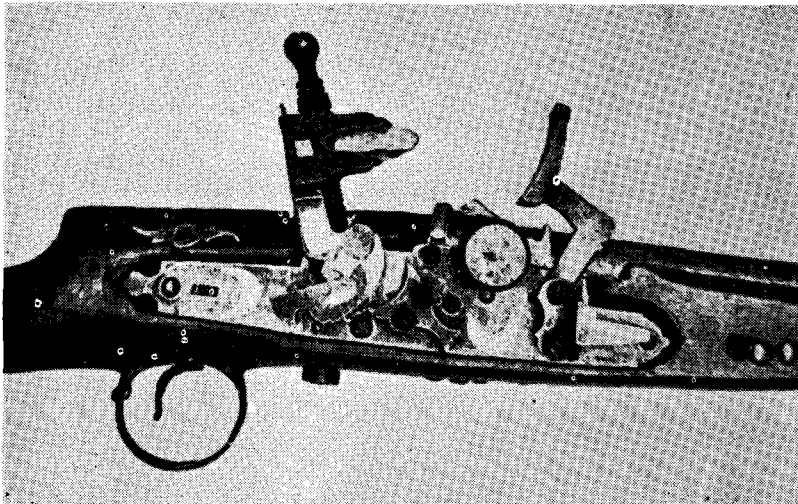


그림 9 燧石式 點火機

21) 拙著 韓國의 火砲(軍事博物館 1977. 7. 25刊) 1. 火器의 發達過程 參照

서 불꽃이 나며, 同時に 當금이 後退에 依하여 火皿의 火蓋가 같이 움직여 열림으로써 點火하게 되어 있다. 그後 1580년에는 「스페인」에서 毛拔形의 外部바네를 쓴 「미큐렛 로크 : miquelet lock」가 生産되었는데 이 式은 火蓋와 當금이 겹쳐있으나 擊發과 同時に 火蓋가 열리게 되어 있다(그림 10 참조). 그러나 이러한 燧石式 發火器도 鷄頭의 回轉半徑이 적기 때문에 充分한 發砲狀態를 얻지 못하였는데 1630年代에 佛蘭西에서 開發한 「후린트 로크 : Flint lock」에 依하여 燧石式 點火機는 完全한 것이 되었다(그림 11 참조) 이 燧石式은 유럽에서 널리 普及되었고, 19世紀初까지 使用하였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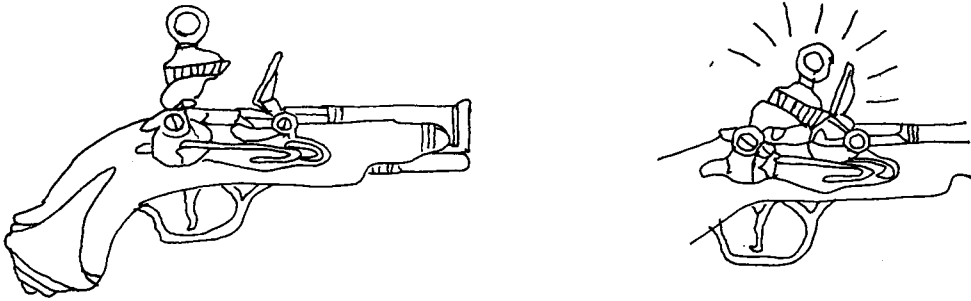


그림 10 미큐렛 로크 燧石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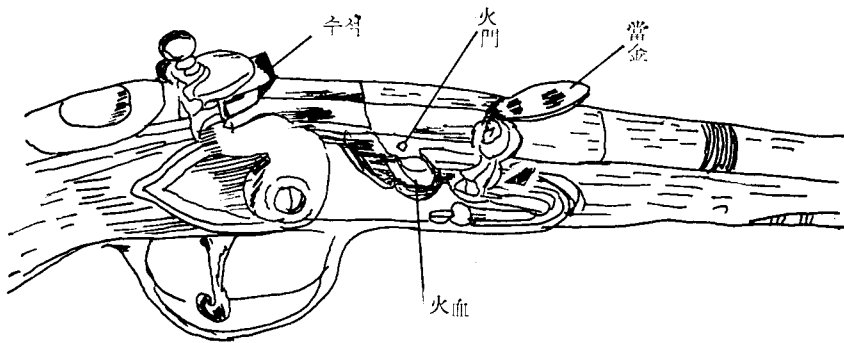


그림 11 후린트 로크 點火機

以上은 火繩式에서 燧石式으로 轉換됨과 同時に 燧石式의 發達過程을 간추려 보았다. 하지만 當時 鹵獲한 燧石式 小銃構造에 對한 內容說明이 孝宗實錄이나 北征日記는 勿論 러시아側 資料에도 보이지 않아 위에 說明한 燧石式 小銃임에는 變함없으나 어떠한 模樣의 小銃인지에 對해서는 더 研究할 課題로 여겨진다.

22) 前掲 拙著

5. 燧石式點火法 參照

## 6. 맺 는 말

本論에서도 밝힌바 있거니와 一,二次에 巨한 羅禪征伐 遠征에서 우리軍은 2,400餘里의 長距里 徒步行軍을 겪으면서 그의 使命을 遺憾없이 發揮하였음은 오로지 指揮官以下 全將兵이 渾然一體가 되었고 특히 指揮官의 致密한 보살핌과 周到綿密한 作戰計劃으로 말미암아 戰, 非戰間을 莫論하고 人的 損失을 極少로 줄여 凱旋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戰鬪에서 얻어진 開發된 小銃은 當時 淸나라 指揮官으로부터 힘겹게 얻어진 것이었으나 보람없이 던져졌으니 이는 宣祖 23年 3월에 倭使 平義智로부터 받은 鳥銃의 境遇나 仁祖 9年 鄭斗源이 淸나라에서 가져온 鳥銃의 境遇와 모두 한결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좋게 解釋해서 申 瀏將軍이 鹵獲한 燧石式 小銃은 實戰에서 火繩式鳥銃만큼 그 機能이 劣等하기 때문에 開發할 餘地가 考慮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以前에 즉 仁祖 9년에 鄭斗源이 淸나라에서 가져왔을 때는 왜 研究의 痕跡이 없으며 또 宣祖 23年 3월에 鳥銃이 처음 入手되었을 때에는 왜 軍器寺에 내려 두기만 하고 研究開發치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宣祖때나 仁祖때 그리고 孝宗때에 얻어진 鳥銃을 다른 나라와 같이 서둘러 研究開發하였더라면 壬亂이나 丙子胡亂같은 恥辱的인 外侵은 받지 않았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實戰에서 얻어진 問題點을 是正解決할 수 있는 契機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研究開發은 커녕 오히려 無觀心속에서 高宗初 後裝式 小銃이 輸入될 때까지 火繩式 鳥銃으로 그 命派을 維持하였던 것이다.